

## 횡문근융해증과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를 동반한 열사병 1예

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최대은, 권오경, 박수진, 이상주, 나기량, 이강욱, 신영태

운동성 열사병은 대부분 젊은 성인에서 심한 육체적 운동후에 발생하며, 40℃ 이상의 심한 고열로 인한 출혈성 괴사가 골격근 및 내부 장기에 생기며, 심한 유산혈증, 속 및 폐부종이 생길 수 있다. 우리나라에서는 국군수도병원에서 보고된 예로 행군, 유격훈련을 한 훈련병에서 발생된 예들이 있었다. 본 증례는 레슬링 선수인 젊은 남자가 한여름에 7일만에 6kg의 체중 감량을 위한 무리한 운동 후 발생한 횡문근 융해증, 신부전, 간염과 황달 및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등의 다발성 장기 손상을 동반한 열사병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**증례:** 환자는 평소 건강했던 18세 남자로 입원 7일전부터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하루에 밥 한 공기 와 약 800cc의 수분 섭취만 하고, 한여름에 환기가 안되는 옷을 두겹게 입고 조깅 및 운동을 지속하던 중 내원 당일 정오경 발생한 의식소실을 주소로 입원하였다. 입원 당시 혈압은 80/50mmHg, 맥박수 108회/분, 호흡수 36회/분, 체온 39.4℃이었고, 의식은 혼미했다. 말초 혈액 검사상 백혈구 15,500/mm<sup>3</sup>, 혈색소 16.7g/L, 혈소판 158,000/mm<sup>3</sup>이었고, PT 13.4초, INR 1.2, aPTT 32.5초이었다. 혈액 화학 검사상 AST 106 IU/L, ALT 20 IU/L, tital bilirubin 0.9mg/dL 이었고, BUN 30mg/dL, creatinine 2.2mg/dL, LDH 941 IU/L, creatine kinase 696 U/L, glucose 57mg/dL이었다. 소변검사상 요비중 1.025, 요단백 3+, 요잠혈 2+, RBC 0-1/HFP이었다. 뇌 CT상 특이소견은 없었다. 환자는 냉수 마찰과 수액 치료이후 혈압 110/80mmHg, 맥박수 82회/분, 호흡수 20회/분, 체온이 37℃로 안정화 되었고, 의식도 명료해졌다. 2병일째 혈변이 2회 있었다. 말초 혈액 검사상 혈소판이 34,000/mm<sup>3</sup>로 감소하였고, 말초 혈액 도말 검사상 혈소판 숫자 감소이외는 특이소견이 없었다. PT 29.8초, INR 3.2, aPTT 66.4 초로 증가하였고, FDP 160, fibrinogen 25mg/dl이었다. 혈액 화학 검사상 AST 2,419 IU/L, ALT 1,755 IU/L, total bilirubin 2.0mg/dL, BUN 44.5mg/dL, creatinine 2.9mg/dL, LDH 1,339 IU/L, creatine kinase 3,487 IU/L 로 증가하였다. 말초 동맥혈 검사상 pH 7.32, pCO<sub>2</sub> 23mmHg, pO<sub>2</sub> 122 mmHg, HCO<sub>3</sub> 12.2mmol/L, 산소포화도 98%이었다. 혈소판 및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하고, 수액치료를 하면서 12병일째는 혈소판이 167,000/mm<sup>3</sup>, PT 12.4초, aPTT 31초, AST 127 IU/L, ALT 400 IU/L, BUN 27mg/dL creatinine 1.5mg/dL로 호전되었다 Total bilirubin은 10병일까지 9.7mg/dL로 증가하였다가 18병일째는 4mg/dL로 감소추세를 보였다. 이후 전신상태 및 전반적인 검사실 소견등이 호전되어 22병일째 퇴원하였고, 78병일째 모든 검사소견이 정상화 되었다.